

“대화의 끈 놓아선 안돼”

문 대통령 “긴장 조성 우려”…북, 단거리미사일 발사 “동해북부선 경제협력 기반될 것”…철도공동체 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미사체를 시험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북한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새해 첫 도발이 감행됐던 했지만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특히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대화에 힘을 쏟아 입기 말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벌어진 당일 남북철도연결 관련 행사를 소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취소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북한의 이번 도발이 남북 대화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앞서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철도건설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이 복원되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며 “15년 전인 2007년 이곳 제진역에서 금강산역으로 가는 시범운영 열차의 기적 소리가 울렸다. 장차 다시 남북열차가 이어지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천적 대책까지 합의했고 도로 착공식까지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동해안의 원산과 단청, 청진과 나선은 북한의 대표적 공업지대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가 실현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발전의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중수 북방경제협력 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홀로서기 선언…승부수 통할까

‘초슬림 선대위’ 새출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둔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로 선대위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상왕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지속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급기야 일각에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 초슬림 선대위’로 재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연초의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세우고 반등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꺼내는 극약처방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조감수에 대해 “성공하면 확실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당내 분열을 더 심화하고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을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선대위 전면 해체를 선언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실무형의 초슬림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내용의 선대위 해산 구상을 발표했다.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선대위 조직을 다 해물고, 선대본부 체제로 조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조직·정책·전략·홍보 정도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수도권 4선 중진 권역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해산’ 방침을 세우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새로 임명해 선거 전략, 일정, 메시지 등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젊은 실무자들에게 선대본부 주축을 맡기고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지 않겠다는, 당과 조직의 힘을 빌리기보다 개인기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해산안은 윤 후보가 6개월 전 정치 입문 당시의 윤석열다움을 회복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회견에서도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초심’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받아온 권성동 사무총장, 윤환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직과 선대위직을 사퇴했다. 이미 2선 후보 ‘불선언한 정제원 의원까지 윤 후보의 최측근 3인방이 백의중군하면서 윤 후보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가 밝힌 선대위 해산의 핵심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공식화할 수 있다.

기존 선대위를 허물고 실무형 선대위를 다시 짜면서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을 ‘경질’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초 김 위원장이 선대위에 공식 합류한 지 한 달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최종 동의 없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하고 후보는 하라는 대로 연기를 하라”고 말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윤 후보 리더십이 훼손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안고 갈 경우 여론에서 집중 제기하는 ‘꼭두각시’ 프레임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후보 주변에선 “김종인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으며 김 위원장을 ‘질러야 한다’는 건의가 윤 후보에게 실제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대위 해산을 예견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후보가 처음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3인과 함께하는 체제를 구상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선대위 원톱’의 반발이 결국 폭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경질함으로써 윤 후보가 갈 등 관계에 있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억지로 풀려 하기보다, 선을 그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윤 후보와 갈라서면서 김 위원장을 따라 선대위에 합류한 금태섭·정태근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여, 신년추경 속도전…내달 처리

전부·사전 등 3대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신년 추경’ 속도전을 밀어붙이며 야당과 정부를 동시 압박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부·사전·재정 지원’ 3대 원칙을 공식화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초 원내대책회의를 추경 관련 긴급회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9.3으로 전

월 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편성)되도록 하겠다.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위적 한일업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의 연장선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방안 검토

“학원·독서실 이변주 마련”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결정과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신부, 기자질문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문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씩 건강매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무료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핑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고객센터 080-80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 동부영양소 (02)552-4507 ● 부산영양소 (02)989-3302 ● 남부영양소 (02)309-4535 ● 광주영양소 (02)329-8999 ● 서부영양소 (02)576-0205 ● 인천영양소 (02)256-4308 ● 강원영양소 (02)374-8901 ● 충청영양소 (02)282-8801 ● 전북영양소 (02)324-5791 ● 전남영양소 (02)244-5001 ● 경북영양소 (02)359-3441 ● 경남영양소 (02)5231-8558 ● 광주영양소 (05)479-8339 ● 부산영양소 (02)904-8581